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 최근성과

고민정(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 최근성과

고민정(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조사성과 |
| Ⅱ. 주요유적 | Ⅳ. 맺음말 |
| 1. 경남지역 | |
| 2. 부산·울산지역 | |
| 3. 대구·경북지역 | |

I. 머리말

최근 영남지역에서는 국도건설, 농공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여러 유적들이 발굴조사되면서 청동기시대 유적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었다. 특히, 마산 진동유적, 김해 율하리유적과 같은 대규모 묘역지석 묘가 경남 각지와 울산, 경주지역에서도 확인되어 이들 지역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가 확보되었다. 무덤군만 따로 조사된 예도 있으나, 주거지, 수혈, 환호, 경작지 등 여러 취락구성요소와 함께 묘역을 가진 무덤군의 조사가 이루어진 예도 다수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행정구역에 따라 경남지역, 부산·울산지역, 경북지역으로 구분하여 2009~2011년도에 조사된 묘제를 중심으로 주요유적 등을 소개하고 그 조사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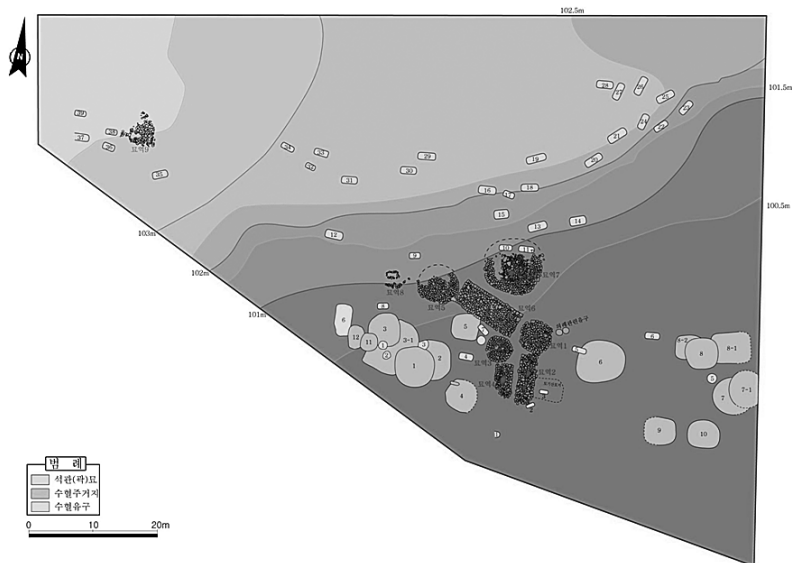
II. 주요유적

1. 경남지역

1) 산청 매촌리유적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952답 번지 일원으로 산청 금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내에 위치한다. 유적의 지형은 북쪽의 필봉산(해발 685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의 사면말단부에 접한 59번 지방도 남쪽의 충적지로 이어지는 경사변환대(해발 110m)로부터 남강에 합류하는 경호강의 1차 지류인 금서천이 곡류하여 형성한 활주사면부의 충적지까지 해당된다.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8년 10월 7일부터 2009년 5월 4일까지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의 집석유구 1기 및 집석유구군, 청동기시대의 묘역지석묘 9기, 석관(곽)묘 40기, 송국리형주거지 17기, 수혈 6기 등이 확인되었다.

1·2호와 5·6호 묘역지석묘의 경우, 서로 다른 평면형태의 묘역에 한쪽 끝을 천석으로 연이어 붙여놓고 그 상단에 묘표석으로 추정되는 암괴가 놓여진 상태이다. 보고자에 따르면, 이들 유구는 매장주체부가 있는 원형 묘역지석묘와 의례관련 구조물로서의 장방형 묘역이 셋트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관묘는 단구면과 충적지에 분포하는데, 단구면에 위치하는 석관묘는 등고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묘역지석묘 주변에는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적색마연토기, 청동촉, 식옥, 석검, 석촉 등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박물관 선사구역으로 유구를 이전하여 복원전시되어 있다.



도 1. 산청 매촌리유적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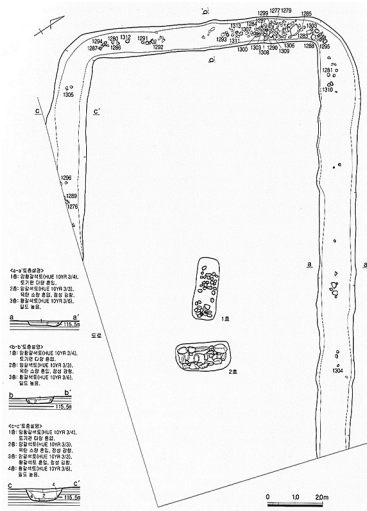
도 2. 산청 매촌리유적 묘역지석묘군 전경

2) 산청 하촌리유적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평촌리, 갈전리 일원(면적 97,209㎡)으로 산청~수동간 국도건 설공사 구간내에 위치한다. 2008년 5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 문화센터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주구석관묘 1기, 주거지 31동, 고상건물지 4동, 수혈 102기, 구 1기,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다. 석관묘는 I B지구의 서쪽에 위치하며, 석관묘는 길이 65cm, 너비 17cm, 깊이 30cm로 소형이다. 15cm 내외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2~3단 수적하였으며, 바닥에는 할석 3매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주구석관묘는 III지구 중앙부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조사구역 밖으로 유구가 이어져서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현재 길이 17.42m, 너비 11.35m, 깊이 23~48cm이다. 주구 내부에서는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천발, 심발 등이 출토되었다. 주구 내부에는 1호 토광묘가 확인되는데, 바닥만 남아있으며, 잔존 상태로 보아 주구조성시 분구형으로 정지 후 다시 굴광한 반지상식 형태이다. 바닥에는 편평한 천석을 한번 깔아놓은 형태이다.

3) 진주 가호동유적

경남 진주시 가호동 702번지 일원으로 진주 가호택지개발사업부지에 위치한다. 유적의 지형은 남강의 공격사면부로 남강의 지류인 가좌천이 합류하는 충적지에 해당하며, 미고지 정상부에는 신석기~청동기시대 유구, 사면부에는 삼국시대 유구와 삼국~조선시대의 발유구가 분포하고 있다. 2008년 2월 25일부터 2009년 7월 13일까지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를 비롯한 매장유구 39기, 주거지 26동, 고상건물지 4동, 환호, 함정 19기, 야외노지 10기, 수혈 26기, 발 등의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청동기



도 3. 산청 하촌리유적 III지구 주구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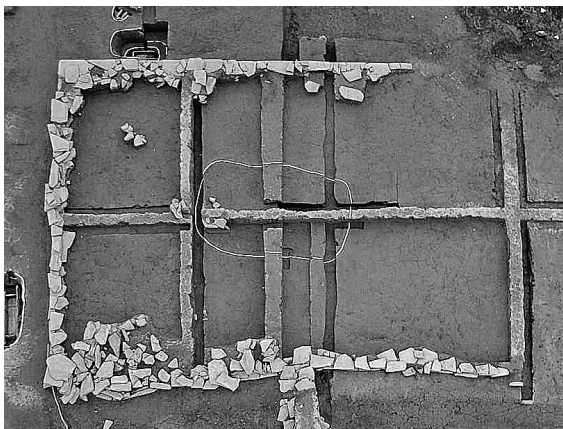
시대 전기의 장방형주거지 2동과 송국리단계의 방형·원형주거지 24동이다.

매장유구의 배치는 2호·3호 원형 묘역지석묘의 서쪽에 연접하여 (장)방형, 원형, 타원형의 묘역지석묘가 열상을 이루며 중첩되어 분포하고, 서쪽에는 1호 장방형 묘역지석묘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묘역지석묘 주변과 외곽에 분포하고 있다. 2호와 3호 묘역지석묘는 성토층과 좁석, 주구를 설치하였고, 4호는 원형의 구획석 내 낮은 성토층 상부에 할석과 천석을 부석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1호 묘역지석묘는 판석, 할석, 천석으로 구획석을 1~3단 평적하고 중앙에 상석이나 묘표석을 시설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석관으로 서장벽은 목재를 이용하여 벽을 축조하였다. 유물은 북장벽 중앙 부근에서 破劍과 청동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관묘는 묘역지석묘 주변과 외곽에서 대부분 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규모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벽석은 판석, 할석, 천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도 4. 진주 가호동유적 무덤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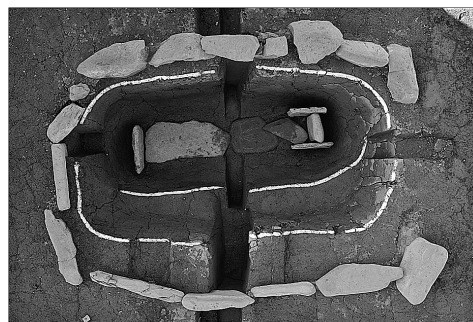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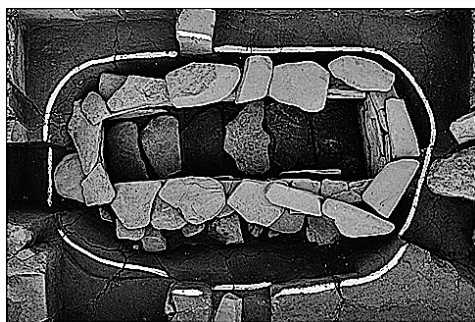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석개토광묘는 묘역 지석묘의 외곽에서 확인되며, 토광 내부에 목관을 설치했던 흔적이 있다. 매장유구에서는 적색마연토기, 석축, 관옥, 환옥, 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도 5. 진주 가호동유적 1호묘



도 6. 진주 가호동유적 2호·3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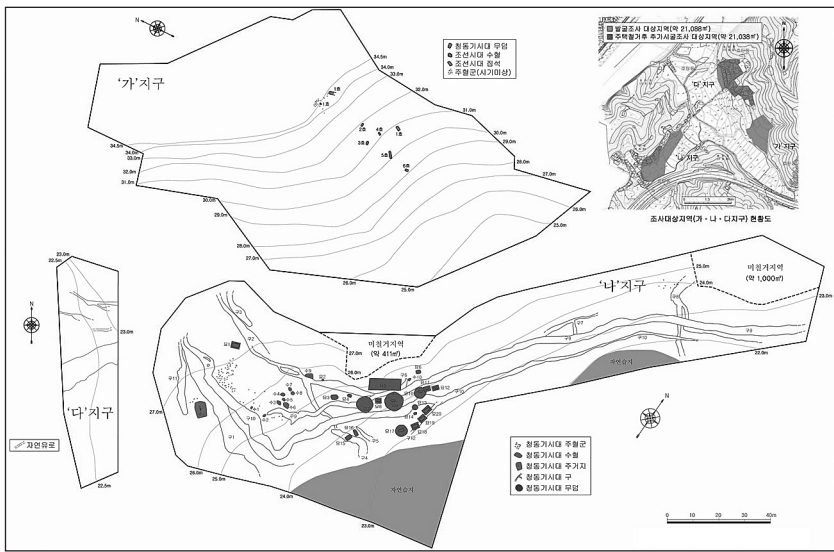


도 7. 진주 가호동유적 10호묘(1), 26호묘(2)

4) 진주 소호동유적

진주시 호탄동 일원으로 진주 혁신도시 건설부지내에 해당한다. 2009년 1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유적의 지형은 서쪽에는 남강, 북동쪽에는 영천강이 흐르며 남쪽에는 해발 60~100m 내외의 소구릉과 선상지형 퇴적활동으로 소규모의 층적저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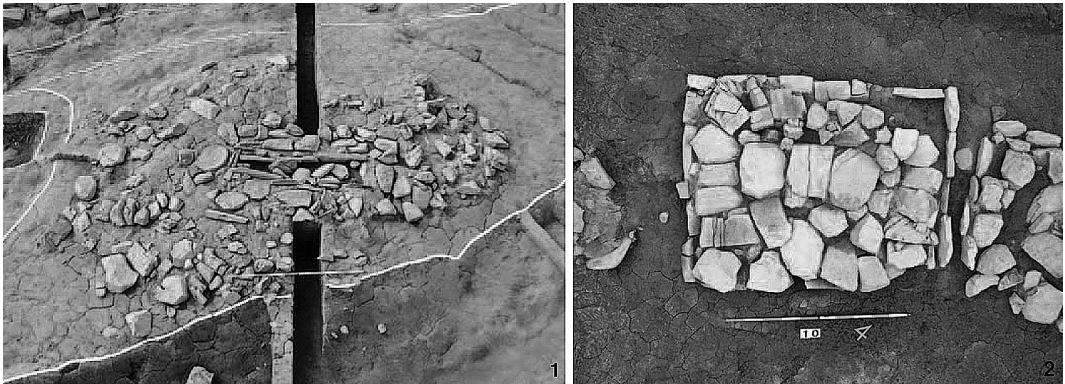
가지구에서는 남동쪽 곡부쪽에 집중되어 청동기시대 구획묘 1기, 석관묘 5기, 상석 2기,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5호 구획묘는 후대 삭평에 의해 구릉 아래쪽에만 구획석 4매가 잔존하며, 매장주체부는 석관형태이다. 석관묘는 평면형태가 ‘口’ 자, ‘ㅍ’ 자상이며 벽석은 장방형의 할석과 판석을 모두 이용하였다. 나지구에서는 구획묘 13기, 석관묘 4기, 목관묘 3기가 조사되었다. 묘역은 북동쪽 경사변환점인 해발 23~24m 지점에 밀집되어 있으며, 등고선과 나란하게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구획묘는 평면형태에 따라 원형 5기, 세장방형 1기, 장방형 7기로 구분되고, 무덤 중복관계에서 원형(先)→장방형(後)으로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원형 구획묘는 성토부를 갖춘 구조로써 매장주체부는 지상식과 지하식 석관이 설치되었다. 구획석 외부의 성토부 범위에서 토기편 등이 집중 출토되었다. 장방형 구획묘의 매장주체부는 지하식의 석관과 목관이 설치되었다. 유물은 구획석 상부, 관 내부, 보강토 내부에서 무문토기편, 석검, 석촉, 석부, 옥류 등이 출토되었다. 석관묘는 구획묘 주변에 분포하며, 매장주체부 축조방식은 석관형, 석곽형, 목관형으로 장방형 구획묘와 유사하다.



도 8. 진주 소호동유적 가·나지구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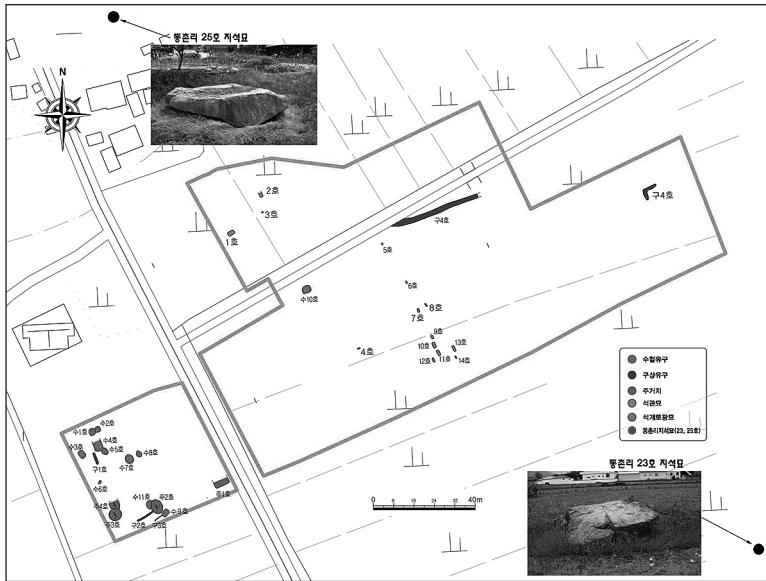
도 9. 진주 소호동유적 나지구 전경



도 10. 진주 소호동유적 9호묘(1), 11호묘(2)

5) 군북 지석묘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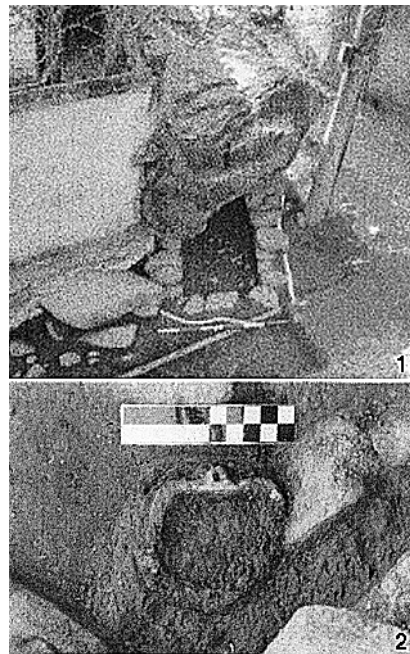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782번지 일원으로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내(함안~진주)에 위치하는 유적이다. 유적의 지형은 함안 오곡리에서 정암들로 이어지는 곡간평야의 중앙부에 해당한다. 2009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월 13일까지 동서문화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12기, 석개토광묘 2기, 주거지 4동, 수혈 11기, 구 5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장방형 주거지 1동과 송국리형 원형주거지 3동으로 주거군과 무덤군은 서로 공간을 구분하여 배치되어 있다.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동촌리지석묘군과 동일한 열상의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동촌리지석묘군과 동일한 성격의 지석묘 하부구조로 판단된다. 석관묘는 축조방법에 따라 상형석관묘 6기와 석곽형석관묘 6기로 구분된다. 석개토광묘는 무덤이 밀집된 공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석관묘에 비해서 규모가 소형으로 보고자는 유아묘나 2차장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도 11. 군북 지석묘군 유적 유구배치도

6) 김해 연지지석묘 유적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462번지(면적 290㎡)로 김해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내에 위치하며, 유적의 지형은 소구릉 사이 계곡부에 해당된다. 2009년 12월 7일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연지지석묘는 현재 1/3 정도는 주택 담장 내에 있으며, 그 외 부분은 주택 사이의 소로에 노출되어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해방직후에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대석 7개가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유실되었다고 한다. 상석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370cm, 너비 200cm, 두께 120cm, 장축방향은 남-북향이다. 매장주체부는 석곽형으로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90cm, 잔존깊이 15~50cm이다. 벽석은 3~5단 정도 잔존하며 치석된 면석을 정연하게 맞추었다. 바닥면은 회황갈색사질점토로 정지한 후 소형 합석을 전면에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북장벽과 동단벽이 만나는 모서리부분 바닥면에서는 마제형(馬蹄形) 청동제 유물이 1점 출토되었는데, 용도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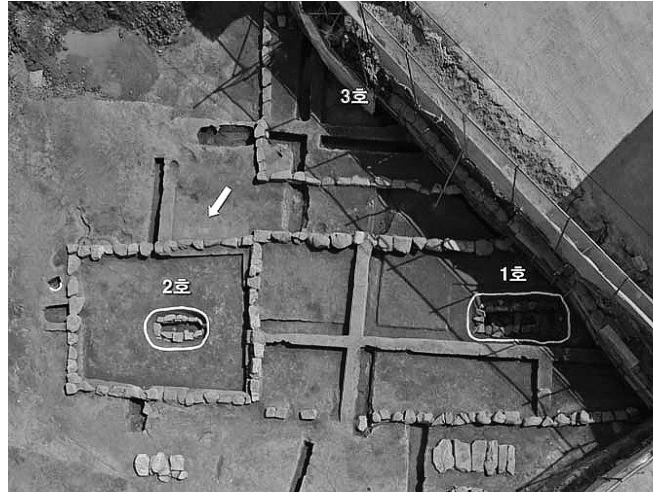


도 12. 김해 연지지석묘 전경(1), 청동 유물 출토상태(2)

7) 창원 봉림동유적

경남 창원 봉림동 394번지 일원으로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내에 해당한다. 유적은 창원분지의 북쪽 말단부에 위치하는데, 정병산으로부터 서쪽으로 분기된 저산성 산지의 남쪽 말단부에 발달한 소규모 침식 곡저부와 충적평야에 해당된다.

A지구는 조사지역 북쪽 구릉 말단의 소규모의 선상지에 해당하며, 청동기시대 석곽묘 1기, 송국리형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C-I 지구는 조사지역 남서쪽으로 구릉 사이에 형성된 소계곡부의 말단부에 위치하여 하천 퇴적층이



도 13. 창원 봉림동유적 청동기시대 구획묘 전경

발달해 있다. 청동기시대 구획묘 3기가 확인되었다. 구획묘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연결한 1호, 2호 묘역의 전체규모는 잔존길이 1,810cm, 너비 566cm이며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1호, 3호 묘역은 조사구간의 경계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규모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묘역 가장자리 석축은 1~3단 잔존하며 부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매장주체부는 석곽 형태로 판석을 얹혀쌓기 하여 벽석을 축조하고 개석을 덮었다. 개석 상부는 할석을 적석하였으며 그 위를 묘역의 석축 높이까지 갈색, 황갈색사질점토로 성토하였다. 출토유물은 석검, 석촉, 적색마연토기이다.

8)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구간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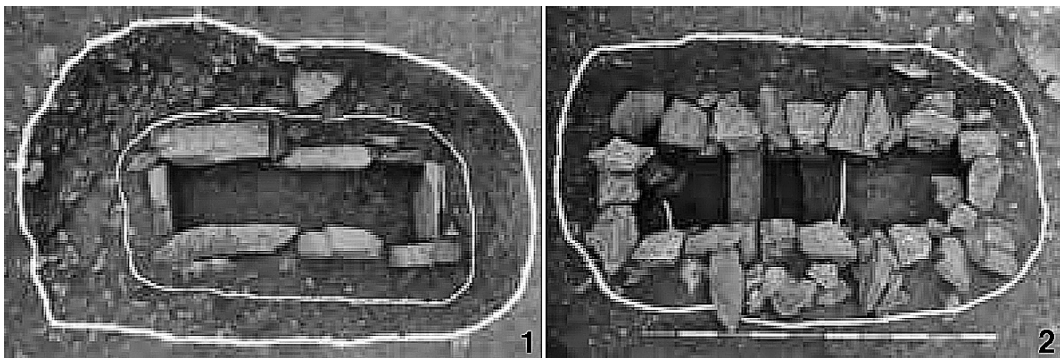
경남 마산시 현동 1449번지 일원(면적 15,698㎡)으로 현동-임곡 국도건설구간의 옥동IC 개설 구간에 해당한다. 유적의 지형은 북쪽의 배후 大山(727m)에서 남동쪽으로 뺏어내린 지맥의 경사도가 완만해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008년 8월 26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동서문화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 4기, 석관묘 11기, 석개토광묘 2기, 주거지 3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송국리형 원형주거지 2동과 장방형주거지 1동이다.

묘역지석묘는 구릉 말단부에서 계곡부로 이어지는 구간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원형(1호, 4호)과 장방형(2호)이다. 1호와 2호는 원형과 장방형 묘역이 서로 연결해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석곽형이다. 3호는 2호 묘역과 4호 묘역 사이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3호묘와 4호묘의 매장주체부는 내부에 소형의 할석을 둘러 세
 위놓았는데 목관 등의 다른 구조를 보강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묘역지석묘에서 유물은 석관
 내부와 외부에서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관묘는 판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한 것과
 할석을 이용한 것, 판석과 할석을 혼용한 형태가 있다. 석개토광묘는 2기가 확인되었으며, 중
 심구릉부의 상단에 위치한다. 유물은 주로 석곽형 석관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일단경식석축, 일
 단병식석검, 적색마연토기 등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된다. 그 외 3호 석관묘에서는 인골
 이 출토되었는데, 늑골과 두개골의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고 골반 이하 다리뼈는 양호하지만 뼈
 가 흩어진 양상으로 보아 굴장이나 세골장의 습속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14. 마산 현동-임곡 국도건설구간내 유적 1~4호 묘역지석묘(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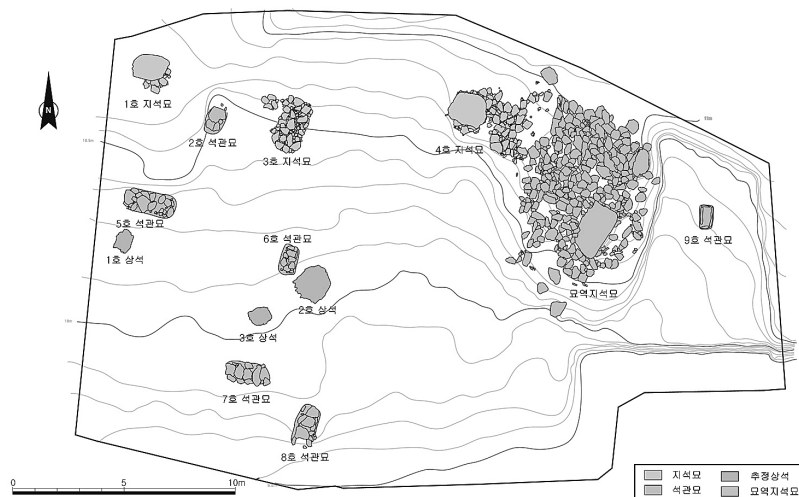


도 15. 마산 현동-임곡 국도건설구간내 유적 2호 석관묘(1), 3호 석관묘(2)

9) 거제 중촌지석묘 유적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20-3번지 일원으로 거제 신현 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개설공사 구간내에 위치한다. 유적의 지형은 북서쪽 鷲山(508.2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온 가지 능선부의 남사면으로, 폭 좁은 선상지형 곡저평야 말단의 완만한 경사면에 해당한다. 유적은 지표조사에서 중촌지석묘군으로 알려진 곳으로 2011년 1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3기, 묘역지석묘 1기, 석관묘 6기 등이 확인되었다.

1호 지석묘는 중촌지석묘군 4호에 해당하는 유구로 상석은 장방형을 띤다. 매장주체부는 할석을 이용하여 영성하게 1~2단 쌓아 벽석을 축조하고 개석을 덮은 형태이다. 서장벽 부근에서 적색마연토기 1점이 파손되어 벽석 상부와 바닥면에서 출토되었으며, 바닥 중앙에서 일단병식 석검 1점과 일단경식석촉 2점이 출토되었다. 묘역지석묘의 묘역은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묘역 내부에는 상석으로 추정되는 암괴가 2매 확인된다. 서장벽에만 판석을 이용한 구획석이 남아있는데, 그 내부에는 30~4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채웠으며, 그 위에 10cm 내외 크기의 할석이 묘역 전체를 덮고 있었다.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관묘는 판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한 것과 할석을 이용한 것으로 구분된다. 8호 석관묘는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하고 개석을 덮은 형태인데, 남쪽은 유실되어 알 수 없으나, 북쪽 단벽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석관묘에서는 적색마연토기,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괴석 3기가 확인되었는데, 출토상태로 볼 때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나, 주변에서 확인된 석관묘의 구조로 보아 이들 석관묘의 상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 16. 거제 중촌지석묘 유적 유구배치도



도 17. 거제 중촌지석묘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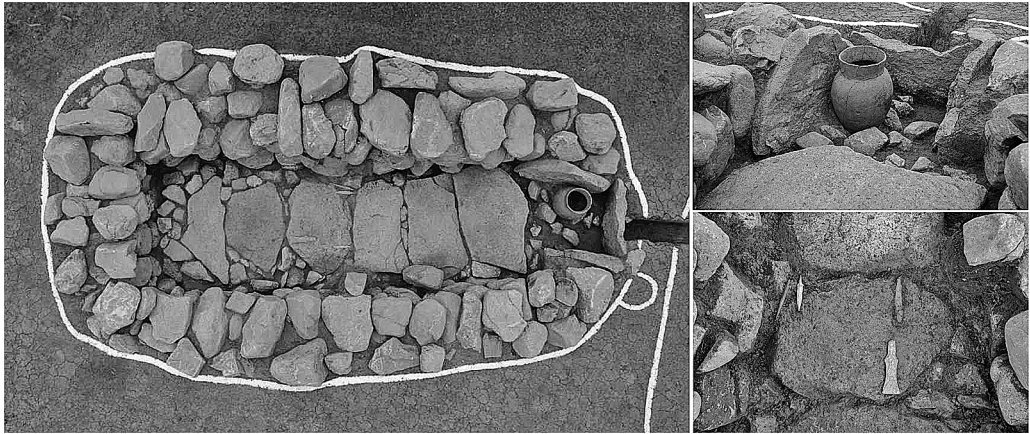
2. 부산 · 울산지역

1)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A·B구역)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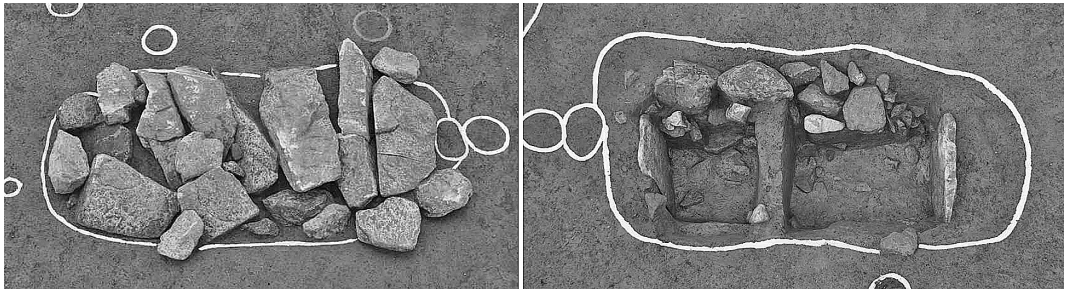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194-3번지 일원(면적 60,606m²)으로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에 위치한다. 유적의 지형은 사방이 험준한 산지 사이에 형성된 구릉 말단부의 완경사 지대에 입지한다. 2011년 2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동양문물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으며, 현재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가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장방형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나지구에서는 주거지 3동(송국리형주거지 2동, 울산식주거지 1동), 다지구에서는 석관묘 3기가 확인되었다. 다지구에서 확인된 석관묘 3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하천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1호묘는 석곽형태를 띠며, 개석의 존재유무는 알 수 없다.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세 벽을 축조하고, 동단벽은 판석을 이용하여 부장칸을 따로 마련하였다. 바닥에는 판석 6매로 시상을 설치하고, 부장칸은 할석으로 바닥시설을 하였다. 부장칸에서는 적색마연호 1점과 석곽의 중앙에서 북쪽에 석축 2점, 남쪽에 석검 1점이 출토되었다. 호 내부에는 곡물의 씨앗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이 확인되었다. 3호묘는 판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하여 개석을 덮은 석관묘로, 특히 서장벽은 고임돌과 묘광사이에 충전토와 할석을 채운 형태이다.

2)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1단계)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거리, 양동리 일대로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1단계) 조성사업부지내에 위치한다. 유적의 지형은 오두산에서 뻗어 내려오는 저구릉의 말단부로 서쪽 순정골에서 동쪽 김천천으로 곡부를 흐르는 지류에 의해 형성되었다. 2010년 4월 28일부터 2011년 8월 13일까지 동양문물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유적은 입지와 성격에 따라 가~마지구로 구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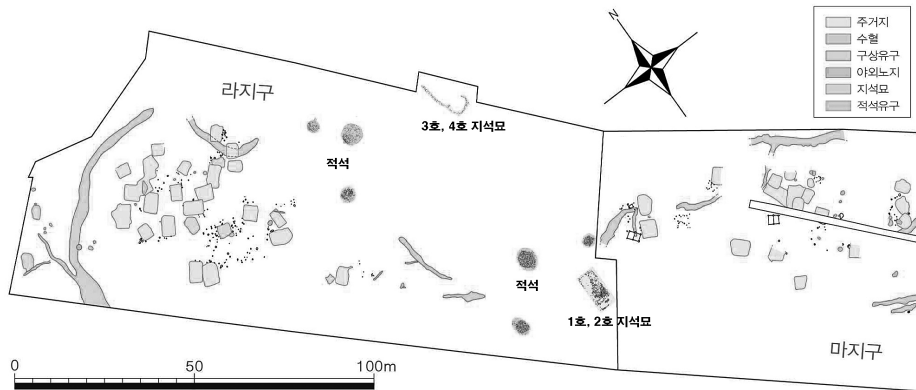


도 18.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다지구 1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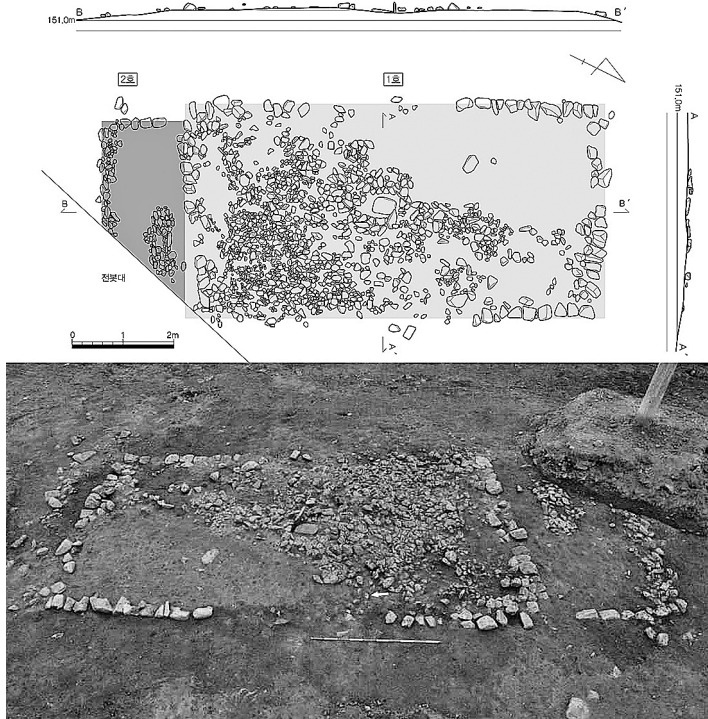
도 19.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다지구 3호묘

조사하였으며, 라지구와 마지구에서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 적석유구, 주거지, 야외노지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장)방형의 4주식, 6주식 주거지이며, 라지구 북서쪽과 마지구에 밀집해서 분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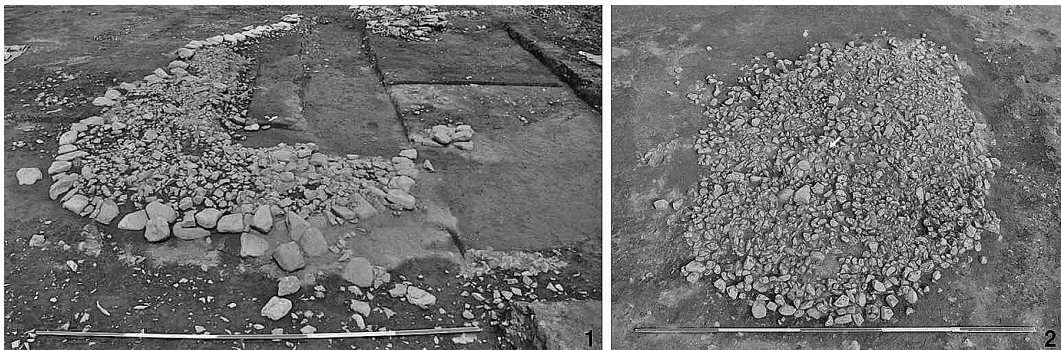


도 20.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라·마지구 유구배치도

묘역지석묘와 적석유구는 라지구와 마지구의 주거군 사이에 위치한다. 묘역지석묘는 4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1, 2호)과 타원형(3호)으로 구분된다. 1호묘의 묘역은 길이 850cm, 너비 450cm로, 구지표층을 정지하여 구획석을 쌓은 후,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를 성토하고 할석으로 적석한 형태이다. 묘역 중앙에는 매장주체부의 부재로 추정되는 판석이 확인되었다. 2호묘는 1호묘의 구획석에 연결해서 조성되었는데, 규모는 잔존길이 150cm, 너비 450cm로 장방형을 띤다. 축조방법은 1호묘와 동일하고, 중앙에 석곽형태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된다. 유물은 매장주체부 상면에서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3호묘는 1호, 2호묘에서 북쪽으로 4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잔존상태로 보아 직경 660cm의 타원형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묘역시설 중앙에서는 석검 1개, 석촉 11점이 출토되었다. 적석유구는 총 6기로 구지표면 위에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3개층으로 성토한 후 할석으로 적석한 형태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3호 적석유구는 직경 260~310cm, 6호 적석유구는



도 21.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라지구 1호·2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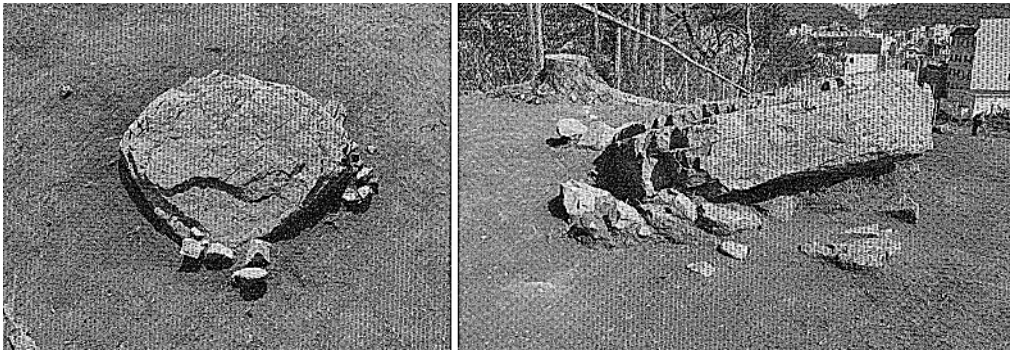


도 22.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라지구 3호·4호묘(1), 1호적석유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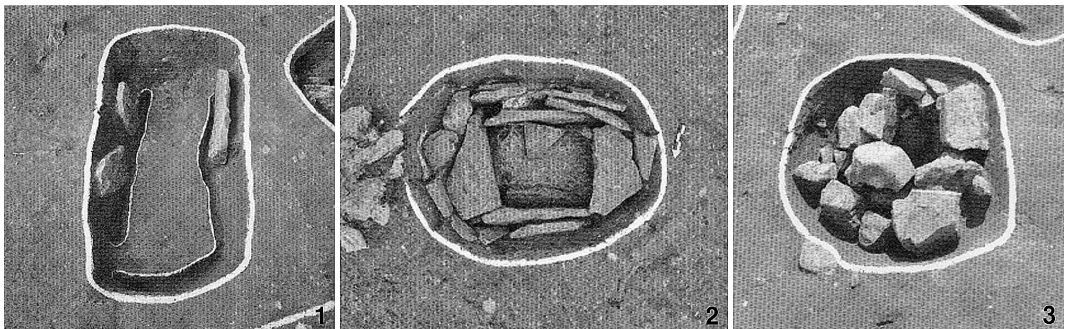
592cm이다. 보고자는 출토유물과 축조방식에서 묘역지석묘와 같으므로 묘역지석묘의 부속시설로 판단하였다.

3) 울주 덕신리 572-6번지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울주군 옥산읍 덕신리 572-6번지의 해발 30m 구릉에 해당한다.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 석관묘 5기, 토광묘 1기, 숫대관련유구 3기, 주거지 8동, 석렬 1기, 수혈 5기, 구 7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와 동남쪽 사면에 주로 위치하며, 지석묘는 구릉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정상부에 입지한다. 상석의 규모는 길이 300cm, 너비 180cm, 두께 80cm로 상석 아래에는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석관묘는 지석묘 부근과 남동쪽 사면에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다. 석관묘는 1매 혹은 2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하고 바닥에는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거나 1매 혹은 여러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마련하였다. 토광묘는 지석묘의 서쪽 사면에서 확인되는데 동장벽에서는 마제석검 1점과 북쪽 부분에서 석촉 11점이 출토되었다. 숫대관련유구는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15m 간격으로 확인된다. 평면 원형의 수혈을 단이 지게 굴광하고 내부에는 30~40cm 정도 크기의 할석을 원형으로 돌려놓았다.



도 23. 울주 덕신리 572-6번지유적 지석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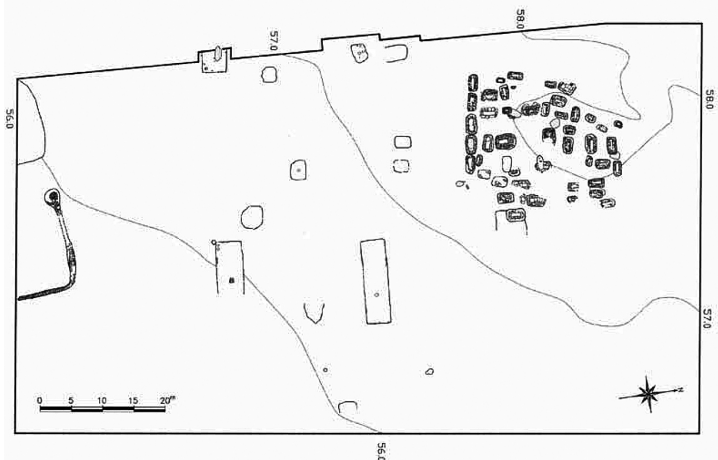


도 24. 울주 덕신리 572-6번지유적 3호묘(1), 5호묘(2), 1호 숫대관련유구(3)

3. 대구 · 경북지역

1) 대구 신서동 청동기시대 유적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으로 대구혁신도시 건설구간 내에 위치한다. 유적의 지형은 팔공산의 지봉인 초래봉(해발 635.7m)에서 남쪽의 금호강을 향해 뺀어 내린 해발 56~58m 가량의 능선 말단의 평탄한 지형에 입지한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한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48기, 주거지 9동, 수혈 4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유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주거지와 수혈은 중앙부 일대에 분포한다. 주거지는 평면 세장방형과 장방형 주거지로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된다. 지석묘는 해발 58m 내외의 평탄한 지형에 방형상의 묘역 내에 밀집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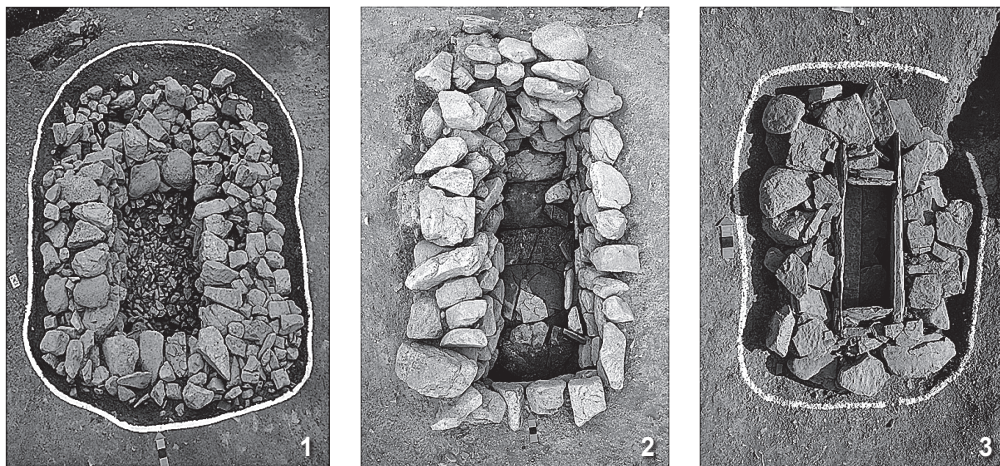


도 25. 대구 신서동유적 유구배치도

지석묘는 장축방향에 따라 남-북향과 동-서향으로 대별되며, 지석묘간의 중복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석은 46호, 47호, 48호묘 매장주체부의 直上에 위치하고 있어 축조 당시에 상석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의 형태에 따라 석곽형 31기와 석관형 17기이며, 석곽형은 다시 판석을 평적하여 축조한 것과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구분된다. 시상은 수매의 판석 또는 소형할석을 깔아 마련하였다. 보고자에 따르면, 48호묘에서는 석곽 내부에 석재가 벽면을 따라 세워져 있는데 이는 목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파악하였다. 출토유물은 석검, 석촉, 적색마연토기 등이 있다. 석관형은 각 1매의 판석으로 ‘표’ 자 혹은 ‘ㅂ’ 자상으로 벽석을 설치하고, 바닥에도 동일한 종류의 판석을 이용하였다. 양쪽 장벽에는 판석을 세워 축조하고 단벽은 판석을 평적한 예도 관찰된다. 유물은 8호묘에서 어망추 한점이 출토되었다. 지석묘의 축조연대는 청동기시대 후기로 판단되며, 판석으로 축조된 지석묘에서 이른 시기의 석촉이, 할석으로 축조된 지석묘에서 늦은 시기의 석촉이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양자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26. 대구 신서동유적 무덤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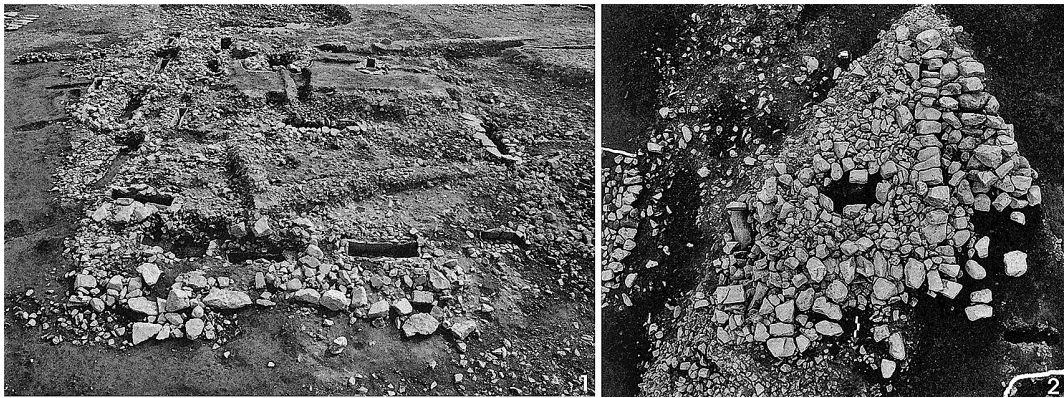


도 27. 대구 신서동유적 25호묘(1), 48호묘(2), 45호묘(3)

2) 청도 화리 청동기유적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일원으로 청도 풍각-화양간 국도(칠성-구곡)내에 위치한다. 유적의 지형은 북쪽에 청도천이 동류하고 남쪽에는 해발 852m의 남산이 있어, 남산에서 청도천을 향해 이어지는 북고남저형의 선상지에 해당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 4기와 매장주체부 30기, 주거지 13동, 수혈유구 등 모두 9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 노지를 갖춘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로 무덤과는 시기차가 있다. 청동기시대 무덤은 미고지에 조성되었으며, 입지 및 밀집도에 따라 4개 군집(가~라)으로 구분된다. 가군은 무덤 19기·상석 6기, 나군은 묘역지석묘 1기·무덤 8기, 다군은 묘역지석묘 3기, 라군은 무덤 3기가 확인되었다. 묘역시설은 원형과 방형(?)이 있고,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판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석관형과 석곽형으로 구분된다. 가-3호, 나-6호, 다-1·3호 무덤에서는 부장칸을 따로 마련하였으며,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 가군은 동-서 20m, 남-북 17m의 범위를 가진 묘역 내에 다수의 매장주체부가 남북 혹은 동서향으로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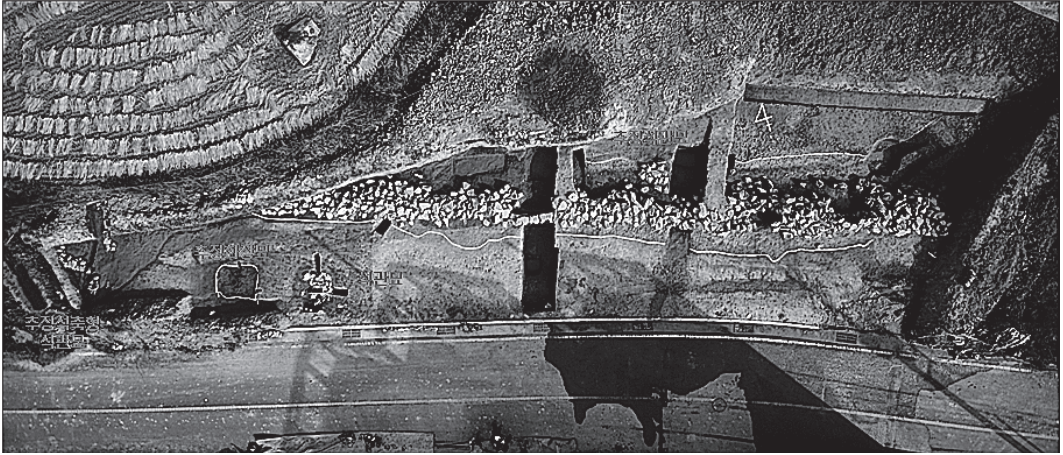


도 28. 청도 화리유적 '가' 군 무덤군 전경(1) 및 '나' 군 묘역지석묘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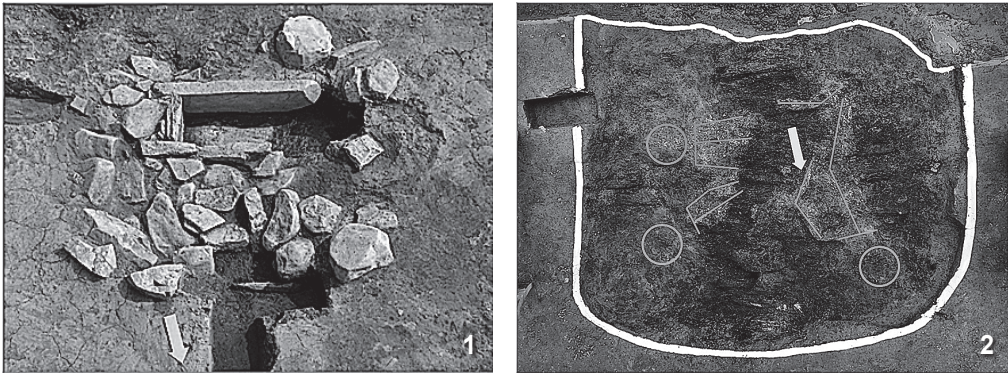
3) 경주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경주시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으로 경주분지 북서편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건축 신축부지는 석장동 지석묘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북편에 인접하여 동서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3기의 지석묘 상석이 열지어 분포한다. 2010년 6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계림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 수혈(추정 화장묘), 석축유구가 확인되었다. 묘역지석묘의 구획시설은 북면에 동-서방향으로 잔존길이 34m 정도가 남아있다. 구획석은 50cm 내외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4~5단 정도 수직으로 구획석 높이까지 성토하였으며, 구획석 외부에는 'U' 자형의溝가 확인되었다. 구획석 내부에는 구획석과 나란한 방향으로 소형석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석관 규모는 길이 75cm, 너비 20cm이다. 내부에서는 유경식 석검 1점이 일부 결실된 채 출토되었다. 수혈(추정 화장묘)은 석관묘에서 서쪽으로 2.2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수혈은 평면 방향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216cm, 너비 175cm, 깊이 10cm 내외이다. 수혈 내부에서는 목탄이 동-서방향으

로 가지런하게 노출되었고, 벽면에는 소결된 흔적이 있다. 목탄 상면에서는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보고자에 따르면, 화장과 의례관련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 29. 경주시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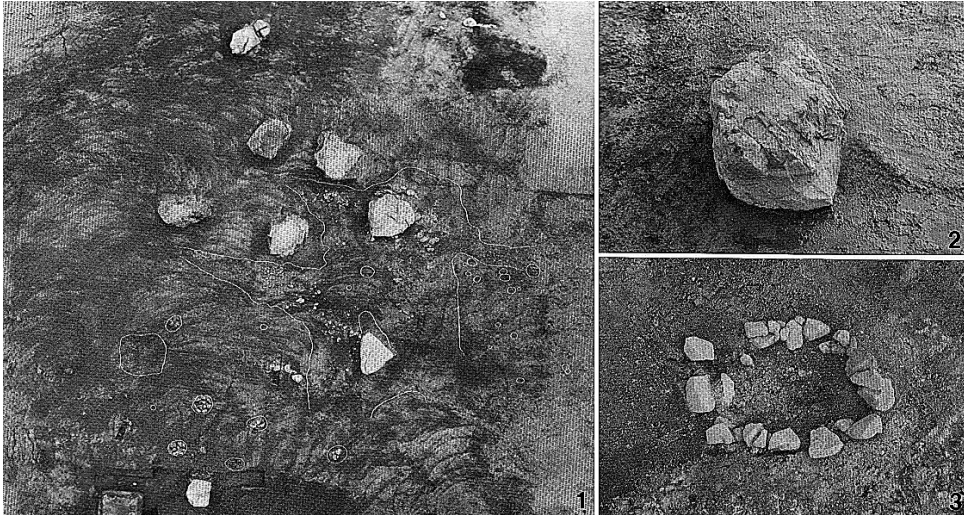


도 30. 경주시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석관묘(1), 추정화장묘(2)

4) 영덕 우곡리유적

경북 영덕군 우곡리 212-3번지 일원(면적 17,650㎡)의 도시개발사업예정부지에 위치한다. 2009년 6월 9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11기가 확인되었다. I 구역에서는 하천의 범람경계지점인 해발 4.8m 지점에 지석묘 상석 2기가 4m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다. II 구역에서는 중앙부인 해발 6.4m 지점에 6호 지석묘를 중심으로 8기가 균을 이루어 분포해 있다. III 구역에서는 북동쪽 경계부에 상석 1기가 위치한다. 1호 상석은 화강암제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250cm, 너비 160cm, 두께 135cm로 가장 크다. 9호 상석은 역암제로 규모는 길이 145cm, 103cm, 두께

56cm이다. 상석 아래에는 할석 몇 개가 돌려져 있는 경우와 매장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인접해 있는 영덕 남산리 지석묘와 유사한 형태이다.



도 31. 영덕 우곡리유적 II구역 지석묘군 전경(1), I 구역 11호 지석묘(2·3)

Ⅲ. 조사성과

영남지역에서 최근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거제 중촌리유적 등 몇몇 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지, 수혈, 구, 환호, 경작지 등을 포함한 생활유구와 매장유구가 함께 확인되었다. 유적은 하천변의 충적지, 구릉 말단부의 완경사면이나 평탄지, 곡저평야 등에 입지한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문화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송국리형 주거지가 함께 확인된다.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A·B구역) 유적에서도 송국리형주거지와 울산형주거지가 함께 확인되었다. 또한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1단계) 조성사업부지내 유적에서는 울산형주거지와 묘역지석묘가 함께 조사되어 주목된다.

· 취락내 유구배치 양상

취락 내에서는 주거공간과 무덤공간, 생산공간을 구분하여 유구가 배치되어 있다. 진주 가호동유적에서는 환호를 경계로 해서 내부에는 주거+저장공간, 외부에는 무덤공간과 주거공간, 동쪽에는 함정열을 경계로 하여 생산공간(밭)이 배치되어 있다.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 부지

내 유적 다구역의 환호가 축조된 독립 구릉에는 송국리단계의 주거지가 위치하며, 사면과 이어지는 서쪽과 남쪽 끝자락에는 석관묘 3~4기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사월리 새터취락의 취락구조는 환호를 중심으로 환호 외부는 주거와 저장공간, 내부는 주거지 소규모 집단과 분묘공간이 형성되어 있다(안재호 2006). 한편 진주 초전동유적에서는 석관묘 4~5기가 일정한 공간에 밀집해서 분포하기도 하지만, 주거지 주변에 함께 배치된 경우도 있다. 주거지와 각 유구간의 시기를 구분하여 공간배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공간배치 양상들을 토대로 각 취락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취락 내에서 묘제는 산청 매촌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대구 신서동유적, 청도 화리유적과 같이 밀집 분포하거나,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구간내 유적과 군북 지석묘군은 석관묘가 열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1단계) 조성사업부지내 유적은 주거군 사이에 간격을 두고 1~2기씩 배치되어 있다. 진주 소호동유적 5호 장방형 묘역지석묘는 성토부는 축조하지 않았지만 구릉의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구획석을 설치하여 성토부가 있는 주변 원형 묘역지석묘와 같이 주변 지표면보다 외관상 高大하게 드러나 보이도록 축조하였다. 신서동유적은 방형의 묘역 내에 무덤이 밀집 분포해 있는데,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열지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 묘역지석묘의 분포

묘역지석묘는 경남지역의 진주 소호동유적, 창원 봉림동유적, 마산 현동-임곡 국도건설구간 유적을 비롯하여, 기존에 조사예가 없는 울산지역과 경주지역에서도 확인되어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 묘역지석묘의 분포는 크게 강(하천)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으로 구분된다. 내륙지역은 구릉 완사면, 강변충적지나 하안단구면 등에 입지하며, 해안지역은 주로 산기슭의 완사면과 곡부 평지에 주로 입지한다. 이러한 입지양상은 기본적으로 취락의 입지양상과 같다(尹晔彌 2010). 산청 매촌리유적을 포함하여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소호동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등 남강변을 따라 대규모의 취락유적과 함께 대형의 묘역지석묘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구간내 유적은 사천 이금동유적, 통영 남평리유적, 마산 진동유적, 김해 울하리유적 등 남해안 일대로 이어지는 묘역지석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바다를 매개로 한 해안에 입지하는 묘역지석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유구의 밀집도나 규모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다를 통한 문화의 유입이 용이하고, 남해안 루트의 교통로 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尹晔彌 2010).

특히, 울산지역은 검단리유적 3호 지석묘 주변에 잔존하는 석재로 묘역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뚜렷하게 묘역지석묘로 확인된 예는 없었다. 울산지역

은 총적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리적 특징으로 수도농경으로의 전환이 부진했으며, 전기의 생계방식이 후기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울산지역 청동기사회의 계층구조는 분묘의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거대묘역의 분묘나 동검, 옥류가 부장되지 않은 특징을 보여 타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였다(황창한 2010). 하지만 최근에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1단계) 조성사업부지내 유적에서 원형과 장방형의 대형 묘역지석묘가 확인되었으며, 경주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에서도 묘역지석묘의 구획시설이 확인되어 경남지역과의 비교 검토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묘역지석묘는 축조방법에서도 평면형태, 규모, 혹은 유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속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구조와 성격, 의례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는 경남지역의 묘역지석묘가 조사된 유적으로 평면형태가 비교적 뚜렷한 유적을 정리한 것이다.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조사유적과 속성분석에 관한 내용은 윤호필(2010)에 잘 정리되어 있다.

표 1. 경남지역의 묘역지석묘

유적명	평면형태		선후관계	비고
	원형	장방형		
함양 화산리유적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산청 매촌리유적	●	■	동시기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유적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진주 평거3-1지구 유적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진주 평거3-2지구 유적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진주 가호동유적	●	■	원형→장방형	동서문물연구원 2009
진주 소호동유적	●	■	원형→장방형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진주 이곡리유적	●	■	장방형→원형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
사천 소곡리 신월유적	●	■	원형→장방형	단국대학교박물관 1988
사천 이금동유적	●	■	원형→장방형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덕곡리유적	●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마산 진동유적	●	■	원형→장방형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마산 현동-입곡 국도건설 구간내 유적	●	■	원형→장방형?	동서문물연구원 2010
마산 신촌리유적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창원 덕천리유적		■		이상길 1994
창원 봉림동유적		■		한국문물연구원 2009
김해 율하리유적	●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거제 농소유적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거제 대금리유적	●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9
거제 중촌리유적		■		우리문화재연구원
통영 남평리유적		■		동서문물연구원 2009

· 주구묘

전기의 주구묘는 춘천 천전리유적이거나 홍천 철정리유적과 같이 평면 세장방형에 주구의 길이가 40m가 넘는 대규모로 확인된다(金權中 2008). 경남지역의 주구묘는 진주 대평리 옥방 8지구유적, 사천 이금동유적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최근 산청 하촌리유적과 마산 진북 망곡리유적에서 추가로 보고되었다. 주구묘의 규모는 20m 내외 크기이며, 대부분 주거지와 떨어져 소군집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다. 하촌리유적의 주구묘는 장방형의 주구 내부에 반지상식의 토광묘가 조성되어 있다. 주구 내부에서는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적색마연호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산 진북 망곡리유적의 주구묘는 평면 ‘ㄷ’ 자형으로 주구 규모는 길이 17.6cm, 너비 12.5cm이며 매장주체부는 석관묘로 추정되며 바닥석만 남아있다. 바닥석의 중앙에서 이단병식석검과 옥이 출토되었다. 주구 내에는 3기의 석관묘가 중복되어 확인되며, 다량의 할석과 천발, 무문토기 저부편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하촌리 주구묘와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목관의 사용

진주 소호동유적, 울산 모듈화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등 목관을 사용한 예가 증가하고 있다. 소호동유적의 경우, 관은 석관묘와 같이 ‘ㄷ’ 자상으로 결구시켰으며 묘광과 관 사이에는 보강석을 설치하였다. 목관은 시상과 관련된 시설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판재를 이용하여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고, 목개를 설치한 후 그 상부에 할석을 놓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진주 가호동유적에서 확인된 석개토광묘도 토광 내부에 목관을 설치했던 흔적이 있다. 특히, 거제 중촌 지석묘를 비롯해서 석관묘 중 벽석이 영성하게 축조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데, 목관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제 중촌 8호 석관묘는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축조하고 개석을 덮은 형태인데, 남쪽은 유실되어 알 수 없고, 북쪽 단벽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자는 단벽은 굴광한 벽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예는 진주 평거 3-1지구 33호 지석묘의 매장주체부에서 단벽을 목재로 설치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목재로 벽을 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전체를 목관으로 사용한 경우, 목관+석개의 경우, 한쪽 벽면만을 목재로 사용한 경우 등 목재를 사용한 다양한 양상들이 추가로 확인되어, 기존의 석개토광묘 혹은 토광묘로 보고된 유적들과의 검토를 통해 목관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물의 ‘破碎’ 를 통한 장송의례

토기를 파쇄하여 넓게 뿌린 의례행위는 평거 3-1지구 33호 묘역지석묘, 산청 매촌리 묘역지

석묘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매촌리유적의 경우에는 원형묘역보다는 장방형 묘역에서 다량의 토기 파쇄 행위가 나타난다. 석관묘의 경우는 산청 매촌리유적에서 벽석을 축조하는 과정과 개석을 덮기 직전 단계에서 토기편을 파쇄해서 뿌린 예가 있다. 진주 소호동유적에서도 이러한 파쇄행위가 나타나는데, 5호 묘는 묘역 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구의 북쪽에 다량의 토기편이 파쇄된 상태로 출토되어 원형구역묘와 관련된 葬俗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기를 파쇄하여 부장한 예는 진주 평거 3-1지구 35호 석관묘,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 진주 소호동유적 12호묘 등에서 확인된다. 산청 매촌리 35호 석관묘의 경우 남장벽 바닥에서 검신부가 반파된 유병식석검, 석관 내부 북장벽측에서 17점의 석촉이 공반 출토되었는데, 석촉은 5점을 제외하고 12점이 모두 파촉되어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해체 조사시 최상단 벽석 아래에서도 석검의 검신부가 2등분되어 출토되고, 12점의 파촉된 석촉의 일부가 산발적으로 확인되어 의도적인 의례행위로 보고 있다. 평거 3-1지구 35호 석관묘에서도 석관 내부 동단벽측에서는 석검의 신부와 병부편이 출토되고, 봉부편은 벽석해체 과정에서 북서장벽과 토광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진주 소호동유적 12호묘에서는 충전토 상부에 부러진 석검을 매납하였다.

농경의례의 흔적으로는 진주 평거 3-1지구유적에서 A지구 논 주변과 B지구 밭 가장자리에서 소형 석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 옥방 2지구와 같은 양상이다(李相吉 2000). 한편, 경주시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에서는 화장묘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묘역지석묘의 구획석과 묘역 내부에서 석관묘에 인접해서 위치하는데, 유구 내부 바닥전면에는 동서방향으로 인위적으로 깔아놓은 목탄이 확인되었고, 목탄 상부에서 인골편들이 확인되었는데 화장 및 의례 관련유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외 마산 진북 망곡리 1호묘,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다구역 1호묘에서와 같이 석곽형태의 매장주체부에 부장간을 따로 둔 구조가 몇몇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진주 대평리 옥방 1지구 5호묘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청도 화리유적에서도 4기의 유구에서 부장간이 확인되었는데, 석관묘에서도 다양한 구조를 가진 자료가 축적되었다.

IV. 맺음말

영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묘제는 경남지역에 다소 집중되어 확인되었다. 묘역지석묘, 석관묘, 목관묘 등 계속해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형태와 구조, 축조방식, 의례관련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구, 환호, 함정 등의 생활유구와 경작지 등의 생산유구와 함께 조사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취락 내에서 무덤공간의 입지와 이들 유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강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일대의 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를 통해, 묘제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남지역에서 묘역지석묘의 분포는 하천 주변과 해안지역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고 유구의 밀집도나 규모면에서도 훨씬 크다. 특히, 창원 덕천리유적과 마산 진동리 유적이 조사된 이래로 산청 매촌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소호동유적 등 대형의 묘역지석묘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최근 울산 지역과 경주 지역 등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유구의 구조 및 출토유물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해 취락의 위계, 취락간 네트워크를 유추하여 청동기시대의 사회조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金權中, 2008, 「青銅器時代 周溝墓의 發生과 變遷」 『韓國青銅器學報』 3.
-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尹弼弼, 2010, 「嶺南地域 墓域支石墓의 變遷과 性格」 『한일고고학의 신전개』, 제10회 영남·구주고고학회 합동고고학대회.
- 李相吉, 2006, 「區劃墓와 그 사회」 『금강 ;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 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_____,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 黃昌漢, 2010, 「蔚山地域 青銅器時代 墓制의 特徵」 『青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울산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 〈보고서·사례발표·자료집〉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진주 평거3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Ⅱ 지구) 3차 현장설명회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함양 화산리유적』.
- _____, 2009, 『마산 진북 망곡리유적 I』.
- _____, 2011, 『산청 하촌리유적 I ~ III』.
- 김재열·염정희, 대구 신서동 청동기시대 유적, 제3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동서문물연구원, 2008,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 _____, 2010,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내(함안-진주)유적 -군북지석묘군 발굴조사 약 보고서」.
- _____, 2010,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0,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진주 혁신도시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_____, 2010, 「김해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현장설명회 자료집」.
- 東洋文物研究院, 2011, 『부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부지 내(A·B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1, 『울주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1단계) 조성사업 부지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 박상규, 2010, 「영덕 우곡리유적」 『2010 연구조사발표회』, 영남지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의회.
- 박영호, 2010, 「경주 석장동 876-5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移住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박용근·이주영·성원순, 2009, 「진주 가호동유적」 『갈등과 전쟁의 고고학』, 제33회 한국고고학전

국대회 발표요지.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거제 신현 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개설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서」.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山淸 梅村里 遺蹟』.

우하영, 김재열, 2011, 「청도 화리 청동기 유적」 『2010/2011 유적 발굴성과 발표자료집』,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문물연구원, 2009,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1차 자문회의 자료 -C-Ⅰ·C-Ⅱ 지구-」.

한선영, 2010, 「울산 울주군 덕신리 572-6번지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2010 연구조사발표회』, 영남지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의회.